

	<h1>보도자료</h1>	2022. 2. 19.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 소개

“위기에 허둥지둥할 아미추어 아니라 일을 해본 유능한 리더 필요”

- 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여덟 번째 시리즈 공개 …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에서 가장 신속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자체 중 가장 큰 326억 규모의 긴급 예산 마련
- 연간 300억 원 이상 도내 기업 지원 등으로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토대 마련… “유능한 경제 대통령과 함께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SNS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여덟 번째 시리즈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를 소개하며 “일본 수출규제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했던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뉴노멀·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독립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렇게 산업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며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자세로 긴급 대응에 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열흘 만에 TF를 구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빨리 긴급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326억 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후보는 “급한 불을 끄고 보니 이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소·

부·장 산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행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고, 도의 기술개발 예산 지원을 받은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이 100% 수입에 의존해왔던 항공용 알루미늄팔레트 국산화를 이뤄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고, 산업 대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지 모른다”며 “진정한 실력은 위기 때 나오는 법이다. 위기에 허둥지둥할 아미추어가 아니라 일을 해본 유능한 리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했던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뉴노멀·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정부, 기업 모두 하나 되어 수출규제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듯, 유능한 경제 대통령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일본의 수출규제, 日 부품 독점을 깨는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굴곡 많은 삶을 통해 얻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란 죽으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날 방법을 찾으라고 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를 ‘멘붕’에 빠뜨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도 그런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릴 급작스럽고 뼈아픈 일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경기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내놓고, 열흘 만에 TF를 구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빨리 긴급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26억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긴급 대응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신고센터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8만 건에 달하는 대일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보니 이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독과점의 폐해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소·부·장 산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행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체계적인 성장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글로벌 클러스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바탕이 되는 R&D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출규제 사태 이후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을 받은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이 그간 100% 수입에 의존해왔던 항공용 알루미늄팔레트를 국산화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고, 산업 대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실력은 위기 때 나오는 법입니다. 위기에 허둥지둥할 아마추어가 아니라 일을 해 본 유능한 리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했던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뉴노멀·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부, 기업 모두 하나 되어 수출규제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듯, 유능한 경제 대통령과 함께하면 어떤 위기든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능한_경제대통령 8.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7165935401>